



‘체험형 독도교육’으로 독도 바로 알기

성당중, 독도 재단의 독도 홍보버스 초청

성당중학교(교장 박계향)은 독도의 날인 지난 10월 25일(금)~11월 1일(금)까지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독도교육주간에는 독도 재단의 독도 홍보버스를 초청해 체험형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독도교육 수업을 마련해 영상 교육 및 독도 방탈출 게임 등을 통해 독도에 관한 지식 습득 및 독도에 대한 올바른 영토

의식을 키웠다.

이 외에도 독도 만들기, 독도섬과 강치의 포일아트 및 스트링 아트 만들기, 독도 스마트톡 만들기, 나만의 독도 열쇠고리 만들기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독도 관련 활동의 결과물을 모아 작품 전시회도 개최해 전교생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독도 재단에서 후원한 독도 홍보버스에서 학생들은 독도 축소 모형 관람, 독도 스마트 웹툰 읽기, 독도 수중 VR 체험, 독도 포토존 사진 촬영 및 즉석 인화 등의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에 대해 바로 아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은 “아직 독도에 가보지 못했는데 독도 홍보버스의 대형화면과 VR을 통해 독

도를 보니 실제로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독도가 매우 아름다웠다. 그리고 독도를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계향 교장은 “이번 독도 교육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성당중학교>



장동초 ‘서로 사과하며 성장하는 사과데이’

대구장동초등학교(학교장 이점형)은 지난달 21일(월)~25일(금)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서로 사과하며 성장하는 사과데이’를 운영했다.

최근 학교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나 오해에 대

해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사과데이’는 평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친구나 선·후배에게 전달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 2학년은 각 학급에서 사과데이 엽서쓰기를, 3~6학년은 위클래스 자율참여로 O·X퀴즈와 사과데이 엽서쓰기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사과데이 엽서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전달함으로써 친구 및 선·후배 간 화해와 용서

의 계기를 마련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려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과데이’에 참가한 학생은 “사과데이 엽서를 통해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장동초등학교>

<도라에몽>, <파워레인저 킹덤포스>, <알로스와 친구들>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채널

디지털 **185번** 가족과 함께 ANIONE Animation

ANIBOX

디지털 **182번** 한일 동시

<원피스> 부터 <블루 아카이브>까지!
한일동시 애니메이션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채널!